第252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2月22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주요현안 보고
   가. 외교통상부소관

審査된案件

1. 주요현안 보고(계속) ····· 1
   가. 외교통상부소관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된 의사일정과 보고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 후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전면대결로 치달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다시 6자회담에 마주앉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의도가 회담 틀을 깨고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정부는 미·중·일·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경주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외교통상부가 북핵문제 등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때 여야를 떠나 국회와 항상 상의하고 초당적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 주요현안 보고(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14시14분)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2회 국회가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국회인 만큼 오늘 통외통위원회에서 외교부의 주요현안과 함께 2005년도 우리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현안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지난 2월 17일에 임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의 미국 방문 결과와 지난 2월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선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신임 외교부 간부들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식 신임 차관입니다.

송민순 차관보입니다. 6자회담의 수석대표로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천영우 외교정책실장입니다.

김원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세주 아중동국장입니다.

구본우 문화외교국장입니다.

이건태 지역통상국장입니다.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9명의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현안 및 2005년도 우리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저의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방미 기간 중에 미측과 협의 시 저는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외무성 성명은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이고 핵 보유 선언이기보다는 일방적 핵 보유 주장으로 평가하고 회담 참가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으므로 결국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대처방향에 있어서 과민반응하지 않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참가국과 일련의 외교노력을 집중 전개해 나가고자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한미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긴밀 협력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미관계가 굳건하게 발전해 온 데 대해서 평가하고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에 미래비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미측과 주요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장관, 보니까 보고서가 15페이지나 되는데 기니까 앉아서 보고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측과의 주요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양측은 북한 외무성 발표의 기본 의도는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과민반응하기보다 차분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조속 복귀하여야 한다면서 6자회담의 좌초 불용, 한반도 비핵화 추구, 북한의 핵확산 위협에 대해서 공동 경계 필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에 우리 측도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대해 5자가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 핵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인 만큼 미·북 접촉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6자회담 참가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외교협의 일정에 따라서 제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양측은 대북 접촉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방미 시 면담한 미 상·하원 중진의원들은 미 의회 내에서도 북핵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한미 간 공조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미측과 주요 협의 결과입니다.

양측은 작년에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 주요 한미동맹 현안이 상호 win-win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올해에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양국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고위실무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측은 현재 한미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라크 파병이 긴밀한 한미동맹관계의 증거이자 이라크 민주화와 재건 지원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미측은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설명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비료 50만t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제가 면담한 의원들은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북한 정권 교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인권법 이행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방미 결과와 관련해서 먼저 금번 방미는 부시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과 향후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 한미 간 주요 이슈를 긴밀히 협조하여 다루어 나가기 위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는 날 북한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 보유 관련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의도 분석 및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서 미 정부 고위 책임자들과 적시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시 2기 행정부의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부시 2기 행정부에서 한미관계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을 협의하는데 있어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6자회담 참가중단 성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 주요내용은 배포된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 성명의 내용과 의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국가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으며 북한이 더 이상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할 구실은 소진되었지만 현 상황이 회담 복귀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회담 참가 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 그리고 비핵화원칙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6자회담 복귀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 관련 언급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과거보다 공식적이기는 하나 공식 선언이라기보다는 일방적 핵 보유 주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객관적 입증 없이 반복해 온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주장을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제기함으로써 북핵문제의 긴박감을 높이고 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 북한의 움직임은 회담 틀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술적 측면이 큰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성명 발표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성명이 발표된 2월 10일 당일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서 정부 대응책을 협의하고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6자회담 참가 중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즉각적 회담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핵무기 보유 거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북핵 불용 입장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저는 2월 10일에서 14일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미 행정부,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북한 성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이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고 평화적·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주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6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 협의, 2월 17일 마치무라 일본 외무대신과의 전화 협의를 가졌고 이후 송민순 6자회담 수석대표의 2월 17일, 18일간 중국 방문 협의를 통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타 참가국가들과도 북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과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야 하며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북측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북한의 핵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미·중·일·러와의 협의하에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설득해 나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측 인사의 방북 협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

하면서 한·미·일 3자 협의를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후속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관련해서 현재 왕자루이 부장이 북경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자루이 부장은 2월 19일 토요일부터 북한을 방문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2월 19일, 20일 두 차례 만났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및 만찬을 어제 가졌습니다. 방북기간 중에는 닝푸쿠이 한반도문제 담당대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찬 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구두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북 양측이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또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 사안이 해소되는 것이 중·북한 양측의 근본이익에도 부합된다, 또 중국과 북한은 정세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면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방송에 의하면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이 6자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 관련국들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 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하고, 미국이 믿을 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에 비추어볼 때 지난 2월 11일 북한의 성명은 회담 불참에 무게를 두었던 반면, 이번 북한 측의 반응은 회담 참가에 무게를 두고 필요한 여건 조성에 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의 평가와 조치에 관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한·미·일 3자 협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히 금년도 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상세한 것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외교통상부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올 한해의 외교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를 확대하면서 영사·민원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선진외교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없이는 외교도 없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진출 및 여행 관련 편익을 증진시키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점증하고 있는 테러위협 등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외교정책 설명과 여론수렴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외교통상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대 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정세의 주요 변수는 북핵문제라 할 수 있는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주도적인 외교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초석이 되어온 한미동맹이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받는 중견 평화 애호국가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의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에도 우리의 국익 증대와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서 정상외교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고, 특히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로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 재건 지원 및 ODA의 선진화 등 다층·다원적인 양자외교와 보편적인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외교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통상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국가 간 무역경쟁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동시다발적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대형 신흥시장에 진출토록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통상 외교를 적극 수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문화 기반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면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류의 확산을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소개와 국내에서의 해외문화 소개를 통해 선진 문화강국으로서의 진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주요현안 및 2005년도 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크신 줄로 압니다.

뉴욕에 남북한 외교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상 남북 직접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국외의 외교채널이 움직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남북이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뉴욕 이외에 제네바, 중국, 호주 등 다양한 채널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외교라인을 통한 접촉현황은 어떤지,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본적으로 전 재외공관에서 기회 있는 대로 북한 외교관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대북정책, 우리의 통일정책,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에 대해서 북한 측에 설명하도록 하는 Standing Instruction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뉴욕채널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죽 그러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뉴욕채널 이외에 다른 채널들도 풀가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의 뉴욕채널은 북한이 먼저 요청했고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비료 50만t의 지원문제입니다. 이번에 뉴욕채널에서 우리의 대북 지원문제와 경협문제, 또 비료에 관해서 어떤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대북 비료지원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남북 공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년과 다르게 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료지원을 요청하고 바로 북핵선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런 일련의 상황이 북한이 기획한 시험에 우리가 걸려들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과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약 20만t 규모의 비료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50만t으로 증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

이 금년을 경제 발전을 위한 해로서 농업 생산 증산을 주공전선으로 내걸었습니다. 아마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50만t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번 외무성에서 공식선언한 데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강성 의견이 떠오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강성 쪽으로 어떤 제재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 정부나 중국정부마저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측면에서 북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통일부장관께서는 비료지원과 북핵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비료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런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비료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느냐, 아니면 민족공조를 신경 쓰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비료나 쌀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문제는 주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어제 답변을 드린 내용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정부가 북측에 비료 50만t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대규모의 비료지원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 공식선언 이후에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을 하고 제재의 목소리를 낼 경우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 중국이 말릴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들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야 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유화정책 일변도로 이것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한계가 보인 것도 사실이고, 지난 국회에서 레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을 때도 장관께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설정을 안 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근만 규정한다거나 채찍만 유효화되는 식의 극단적인 접근은 대단히 위험하고 판을 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한데 국제적 공조도 좀 생각을 하셔서 유화정책과 강경책의 균형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다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문헌 위원 핵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물어보실 것이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발급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시스템 구축사업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입찰 당시에 최적업체로 선정되었던 대원SCN은 지금 청와대 등 각계에 진정을 하고 외교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4일 여당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원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별도의 대책회의를 열었고,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민원성 문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 2000년부터 사업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했고 어제 저희 보좌관을 외교부로 보내서 현재 추진 중인 입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를 했는데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사진전사식 여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외교부는 대원SCN과 한국조폐공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시 차관이었던 장관이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맞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데 당시 실무위원회 평가결과를 보면 대원SCN은 처음에는 3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네 달 만에 뒤집혀서 대원SCN이 1위로 평가받고 적격업체가 되었습니다.

장관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네 달 만에 갑자기 기술이 발전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만한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때 조달청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관련부처의 전문공무원들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모든 업체들이 전부 와서 동시에 시연회를 갖고 또 아주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문헌 위원 장관께서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실무위원회의 평가내용이 네 달 만에 3위에서 1위로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규선 씨와 여당 핵심부 기타 등등이 거론되면서 외압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대원SCN이 추진했던 전사여권 발급사업이 실패했고 감사원이나 외교부 자신도 결국 2003년 7월에 대원SCN이 참여한 사업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외교부와 감사원에서 그 당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기술력의 부족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관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외교부 잘못도 큽니다. 결국 예산낭비만 했다는 것인데 총체적인 사업실패는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장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몇몇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언뜻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3위를 했던 것도 그때 1위를 한 외국업체들의 청구금액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지난 4월 대원SCN이 낸 입찰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현재 외교부는 대원SCN으로부터 51억의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민사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소송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우리가 사진전사식을 시작했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2001년 9·11테러가 발생을 하고 또 아주 상당히 강화된 여권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 여권이 여러 가지 위조·변조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전사식, 전혀 위조·변조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래서 장관께서 2004년 3월 3일 완료된 신여권발급사업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텐데 LG CNS랑 삼성SDS가 응찰을 했고 삼성SDS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양 회사의 기술평가 점수가 불과 0.00375%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외교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기관인 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위·변조 방지와 인쇄 품질 여기에서 실시한 양측 견본여권의 평가결과 성적이 단 5%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원 배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작게 낮아지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주 기술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문헌 위원 예.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입니다.

여권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 외교부뿐 아니고 관련부처와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들로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배점 같은 것도 그러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만 듣고 이 안에 배점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입찰 평가기준이 적절했는지, 각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있었는지 장관께서 좀 직접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후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장비 35세트 지금 입찰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SDS와 2000년에 설비된 소규모 회사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 낙찰업체를 우선한다는 방침과 함께 기술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저런 것이 결코 보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는데 앞으로 추가입찰이 완료되는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4월이나 정기국회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 것은 외교부가 외교정책은 잘하나 국내사업은 빵점이라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여권 발급 지연 때문에 우리 국가위상 훼손, 국민 불편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여권이 위조되었나 변조되었나 한 번 더 쳐다보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이하 우리 외교부 직원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 아무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평화외교에 정말 노력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정말 외교전쟁의 시대에 외교통상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지원과 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단문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초점은 역시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론을 전제로 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면담과정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친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대체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통령특사로 방문을 했었고 또 제가 그 직전에 중국외상하고 통화를 했었고 또 송민순 수석대표가 중국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제가 중앙방송에 나와 있는 이번 북한의 보도내용 전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와 조선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조 쌍방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천명했다" 해서 여기 표현을 보면 "조선(북한) 측의 합리적인 우려"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번 대화과정에서 북한 측이 중국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에게 이야기하는 "북측의 합리적인 우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북한 측의 합리적인 우려가 뭐냐 이걸 제가 여기에서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이 죽 얘기해 온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이 소위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계속 주장을 했었지요.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믿을 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해 달라' 등등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께서 아마 오늘 오전에 간단한 기자인터뷰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기존의 성명과 일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일단 김정일 위원장 수준에 있어서의 논평에서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요구에 비해서 '믿을 만한 성의'라는, 외교적 표현으로 하면 훨씬 더 완화된 표현들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6자회담에 북한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 10일자 성명은 회담 불참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왕자루이 부장이 만난 것은 일종의 어떤 조건을 내걸었지만 일응 회담 참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성 위원 뉴스위크 최근호에서도 이제는 부시 대통령이 화답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멘트들이 나왔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한에 있어서의 핵 포기 의사와 또 6자회담 참여 의사는 있는

데 부시 집권 2기 이후에 북한의 근본적인 우려 즉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도 주지 못했다는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표현이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좀 공개적인 언급을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과거에 표현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 외에 물리적으로 또는 미국이 강제적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공식적인 멘트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부시 대통령은 2002년부터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얘기했고……

○최성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초점을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하고 지금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교체를 위한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멘트가 부시 집권 2기에 들어서서 좀 언급이 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기억하기는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언급은 안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이나 체제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가 문제제기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미국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한 대안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평화협정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 6자 간에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3자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최성 위원 외무성 공식성명이 나온 이후에 과거에도 제기됐습니다마는 보다 더 비중 있게……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대북제재를 최선책이라고 제안했고요. 또 릴리 전 주한대사도 대북 압박정책을 제기했고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은 분명히 유엔안보리 상정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제재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정부의 또는 외교부장관으로서 현 단계에서 유엔안보리 회부나 경제 및 군사적 제재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 간에 분명히 합의된 바와 같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원칙이 있었고 이것이 6자회담 참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컨센서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안보리로 가지고 간다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2003년 2월 뉴욕타임스의 '무서운 비밀계획'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제2의 한국전쟁을 감수해야 된다는 우려의 언급이 나와 있고, 실제로 2003년 3월도 공격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있었고, 국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낸 '코드네임'이라는 책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암호가 콘플랜(Conplan)이라고 하면서 제법 비중 있게 영변을 포함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 관련 계획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2002년 10월부터 2003년 초기까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었고 보도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정부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자나 개인 전문가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려를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또 2000년 5월에 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아주 확고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중차대한 역할을 하

고 계시는 장관님께서 또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산적한 외교현안 속에서도 대단히 적절한 외교적인 멘트를 하셨던 장관님께서 이번에 그 중요한 방미 회담을 하신 이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은 없다. 단 개성공단은 현 수준에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은 NSC를 포함해서 정부 각 관련부처가 토씨 하나까지도 정제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의 우려와 혼선을 가져다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백한 방미 성과와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하겠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규모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대개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본정책 틀 내에서 한 건데 혹시 어감상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통일부나 청와대, 외교부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외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원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초유의 북한 핵보유 선언 사태를 맞아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남북 간의 상황 전개가 숨이 가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노력과 채널을 가동해서 현 사태의 진상 그리고 당사국들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마는 확인 촉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초·중반경에 북한 측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와 우리나라 외교당국자 간에 직접 접촉을 가진 바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다 확인해 주시기는 어렵겠고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남북 정상회담 5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들이 다방면에서 가동되어 왔던 것이 지금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 간의 공식채널은 작년 7월 이후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나 외교당국 차원에서 비공식 채널들을 유지하고 있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 북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 전후해서 남북 간의 움직이는 동향을 봤을 때는 채널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특히 노동당의 전위조직들 또 행정부의 조직인 외교당국과의 접촉 노력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북한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이라든지 노동당의 의사결정기구에 접근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가동됐던 채널들에 비해서는 채널 수도 지나치게 적고 약한 게 아니냐 이러한 관측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남북한 간의 채널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남북한 당국자 간의 직접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고 일종의 경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남북한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위원 어차피 우리가 대북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정보는 중국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5년 정도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접촉이 있어 왔다면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활동력이 우리의 발언권으로 연결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기대보다는 약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한미 간의 의견 또는 협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1월 취임식을 전후해서 한국의 외교부를 비롯한 안보외교 당국이 총력외교를 벌여서, 취임사나 의회의 연두교서 또는 청문회 등에서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비난하는 강도를 낮춰줄 것을 요지로 하는 외교활동을 펼쳐서 그 결과 직접적인 자극은 줄어들었고 결국 폭정의 전초기지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자유 확산이라는 일반론적인 외교기조를 선언하는 선으로 선방해 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표현 강도를 변화시키는 데 한국 외교당국의 노력이 주효한 것은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미 간에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하고 특히 북한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 결과로 결국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북한 측의 평가 내지 태도는 '노력은 한 것 같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후한 평가를 안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여하간 6자회담에 참여하는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가 회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점은 북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위원 알겠습니다.

미국 내에도 미국의 협상안이 특히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결국 과거 소련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두려움 때문에 협상해서도 안 되지만 협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협상안 또는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의 외교당국도 그런 점들을 미국과 의견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의 하나가 지난번 장관님 미국 방문 당시에 진행했던 노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겠는데요,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북의 체제보장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핵만 포기하면 현재 김정일로 대표되는 폭정의 전초기지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해서 유지된 상태에서도 점진적인 자체에 의한 인권개선을 기대하면서 평화공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핵도 포기하고 미국 측의 경우로는 체제 변형, 레짐 트렌스퍼메이션을 병행하는 그러한 착수를 확보해야만 평화공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흔히 말씀하실 때 북한의 체제보장 또 안전보장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사찰을 받아서 완전히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자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체제보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국제사회는 북한도 스스로 대외개방이라든지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북핵 해결 이후에도 북한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6자회담 틀과 그와 유사한 다자 간 체제보장 체제가 한국과 주변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 방미 결과를 전반적으로 브리핑하시면서 미국과의 인식을 접근시키고 오해를 불식하고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에 대한 서로 간의 설명 내지는 설득 기회를 갖기 위해서, 리트리트(Retreat)라고 하셨지요? 외교·국방·NSC 양국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차원의 긴밀한 토론회를 갖자고 하셨는데 그것의 정확한 취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거기에서 의제가 될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한미 간에 아주 많은 변혁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외교정책에 입각해서 한미 간의 동맹관계도 좀더

균형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안보현안, 동맹현안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고위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이것이 정책의 기조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했고 미국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내달 중에 한번 이런 리트리트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내달이면 3월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원희룡 위원 일단 1차 리트리트는 미국에서 열립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원희룡 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장관께서 10일부터 14일까지 방미하셨는데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우리 정부와 함께 공동 대처하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대체로 여기 자료에 나온 것들이 이번 북핵 관련 북한의 의사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이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행정부나 관료들은 대체로 냉정하고 침착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음에 반해 행정부가 아닌 일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나 미국 내 주류의 여러 그룹들의 의견은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무척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행정부 관료들도 만나고 의회지도자들도 만나고 언론인, 학계 지도자들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사이드에 있는 분들과 재야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차이 같은 것은 못 느끼셨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와 의회지도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특히 워싱턴포스트지는 사설을 통해서 '한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아주 타당하다, 적절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확대되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데 대해서는 큰 언론의 각광이라든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좀더 상당히 강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언론에 부각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부 간에 또 정상 간에 각급 레벨에서 협의한 결과 이것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국회의원,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대통령의 방미 때 그런 기본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교적 일치된 견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적하신 대로 미국사회가 오피니언리더 그룹의, 조야에 있는 많은 그룹들이 정부에 영향을 크게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가셔서 비교적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더 다양하게 조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작업을 하고 필요하면 국회나 민간단체에도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 달라는 좀더 폭넓은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그런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가 미묘하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어느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비록 6자회담이 중요하고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지만 문제의 이견이 주로 북·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리 후보가 그것을 약간 병행하자고 주장했던 것도 있지만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동의를 않던데요.

여기 보도에 보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북 간 접촉이 미국 측에게 얘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미국정부는 미·북 간의 직접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점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일단 개최되면 그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좀더 많은 미·북 간의 직접대화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우리도 미국 측에 많이 제시를 했고 미국이 우리의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미국정부 당국과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점을 얘기했고 CNN과 회견하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CNN 아나운서가 왜 미국정부가 북·미 접촉을 반대하느냐고 한 데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했는데 백악관,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저에게 설명을 잘 했다, 그런 점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 측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 들어오면 미·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6자회담과 북·미 간의 직접대화가 병행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 대통령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6자회담의 틀 내에서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6자회담에 들어오면 거기서 얘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6자회담에서 설정된 주제 내에서는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단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전체회의 말고 별도로 미·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지난 2차·3차·6차 회담 때도 그러한 접촉을 가졌고 상당히 심도 있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계륜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나 6자회담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북·미 간에 대화를 해서 풀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나선다고 하지만 강제력을 써서 북한을 설득할 리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틀 내든 틀 밖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 정부의 방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6자회담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시는데 결렬될 리가 없고 결렬 안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요. 그래서 그다음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무의식적으로 6자회담이 결렬되면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한 미국의 3원칙이라는 것 중의 첫 번째가 6자회담 좌초 불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좌초될 때 불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걱정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이번 방미 중에 만약 6자회담이 좌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압박할 것이냐 봉쇄할 것이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 방미 기간 중에는 6자회담이 깨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는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북한이 6자회담에 안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시키는 외교적인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신계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석현 대사가 주미대사로 갔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도 갖고 우려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잘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문제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홍 대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냐 하면 정부가 도와주면 유엔 사무총장도 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꼭 적절한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핵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중대한 민족적 과제가 있는데 대사가 범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민족적 이익을 지키는 데 조금 부족해지지는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우려에 대해 장관님께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홍석현 주미대사가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고 또 언론인으로서도 많은 지인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미대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저와 외교통상부에서도 홍석현 대사가 훌륭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최병국 위원입니다.

반기문 장관님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요즘 북한에서 요청한 비료 50만t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 체니 부통령이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반 장관께서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미 대사관 측에서는 과잉 대응도 좋지 않지만 과소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은 성명도 발표했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것을 안 했다, 또 부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요청했다…… 양쪽 말이 좀 다릅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대량적인 경제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명백히 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13일 비료 50만t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할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요청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북한은 우리 남한을 소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조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미 제국주의의 주구라든가 식민지 상태에 있다든가, 남한은 미제의 착취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이고 거지가 득실거린다는 조로 악의적인 선전도 했고 요 근래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은 탁월한 전략으로 적들로부터 군량미를 받아 온다는 선동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동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비료나 쌀, 관광자금, 현금 등을 요구할 때 지금도 그런 기조로 당당하게 너희들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 있는 주구들이다, 우리는 민족의 주체사상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지 않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동안 소위 강성대국이니 선군정책이니 주체사상 등의 선전만 하다 보니까 인민이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민족애를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입장인지 그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한의 요청이 적십자간에 왔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했는지는 제가 짐작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비료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금년을 농업 생산증대를 주공전선으로 해서 농사철에 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까지 우리가 비료를 제공한 것도 동포애적이고 민족애적인 상황하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의 체니 부통령의 언급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일자 뉴욕타임스와 그날 아침 워싱턴포스트를 보시면 보도가 아주 100% 상반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요청을 했다고 나오고 워싱턴포스트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날 특파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월포위츠 부장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정부가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고, 또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관리라고 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崔炳國 委員 우리 정부가 비료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우리가 여태까지 비료를 155만t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원할 때 그쪽에서 고마움 같은 것을 느낍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료지원으로 농산물이 증대되었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장관께서는 이번 방미 성과로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및 고위실무자급 협의 개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서울에서 안보정책구상회의를 개최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SPI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따른 기지이전용 부지매입 및 비용 등 후속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및 임무 변화,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 등의 중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팀 10명을 두기로 했다는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팀을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고 이런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동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런 회의에서 선언 형식으로 실천을 한다고 할까요, 물론 그 방위조약의 근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의 회의결과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한반도의 미군의 역할 같은 것이 이런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어떤 것일 것이며 전문가로 10명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SPI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한미군의 장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보동맹현안을 협의하는데 정책실장급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는 우리 NSC,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중요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SCM이라고 해서 연례안보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외교현안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간에 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기로 한 외교차관급회의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SPI는 특별히 주기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두 달 또는 두 달 반이나 세 달 사이에 한 번씩 해서 모든 일을 챙겨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위에는 국방장관회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들은 우리가 국방이나 외교와 관련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을 두어서 서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요즘 정권이 교체되고 코드인사가 되는 것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대단히 소용돌이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은 것이고,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설 연휴를 맞아서 경찰청장이 독도 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하고 근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분쟁지역으로 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행사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경찰 측이 지난 1월 30일에 청장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독도방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문의를 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정부의 기

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이 내부검토를 해서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기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현재 분쟁지역으로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목소리를 낮춘 것은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아닙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정부가 아주 강경하고 강한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지금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올해도 독도를 비롯한 북방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7억 8000엔, 78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정한 대응과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교당국 간의 최고위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과를 지켜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 가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의 입장 중에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은 지난번에 미국하고도 가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비료지원문제 때문에 월포위츠 국방부부장관하고 사이에서 말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과 또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재량 사이에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직업외교관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소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축적된 경륜을 소신껏 발휘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공히 다 장관님이 하시는 일을 지원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때 저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올 것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에게 비쳐지거나 국제 여론에 비쳐질 때도 한미 간의 의견차이보다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왕자루이 만난 것도 구체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는 조금 안도가 됩니다.

최근에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한반도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국제 질서의 큰 흐름과 외교적인 진전에 비추어서 우리 한반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핵을 가진다, 6자회담을 안 한다…… 희한한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여론이나 분위기 자체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점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바로 인권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질이 되고 있다, 핵의 인질, 통일의 인질이 되어 가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 다니는 식으로만 가고, 일방적인 햇볕정책의 인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햇볕 안 쬐면 파탄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끌려 다니자, 그러니까 상식과 외교적인 통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국제적으로 볼 때도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다, 제가 밖에 나가볼 때 이것은 다 웃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것 비슷하게 하고 만약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수구꼴통 아니냐, 이런 희한한, 아주 예외적인, 전 세계의 글로벌 트랜드하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마치 통일이니 하며 이상한 가면을 덮어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장관님, 그것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실 거고요.

최근의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아까 이런 보고를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면서도 또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유의를 한다는 식으로 가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우선 질의를 하나 할 것은 이번에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다시 세 번째 제기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가능성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저는 모든 외교관으로부터 들을 때, 미국, 일본 이런 데가 아니라 유럽이든지 어디 나라에서든 들을 때 결론이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우려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의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금년에도 EU가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가능성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가능성만 있으면 안 제출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과거 2, 3년간 죽 결의안을 제출해 왔고 또 지난 1년간……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문수 위원 저는 EU에 소속된 나라의 우리 한반도 담당책임자들하고 만나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 말씀은 파악하셨으면 답변을 분명히 하시고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영국 외무부에 있는 찰스 무어 과장이 쓴 글 혹시 외교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놀란 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글을 써야 되는데, 영국 같은 데나 전 세계 나라가 다 이 정도의 보편적 인권기준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할 말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나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가냐 이거예요.

첫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한 영국 정부의 견해' 외교부의 한 과장이 자기 기명으로 직접 쓴 글이에요. 첫마디가 뭐냐 하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사각지대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죽 거침없이 나와 있어요. 올해 상정계획이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영국의 활동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영국 의회의 이야기가 세 번째 결의안 채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무어 과장보고 그랬어요. 정말 영국이 왜 민주주의의 나라고 인권의 나라인지 그 위대한 점을 내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도대체 한국 외교부가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김정일의 눈치만 보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우리 외교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고요.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인권의 절대적인 가치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인권의 절대적인 가치라든지 인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고 또 북한의……

○김문수 위원 존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동포가 당하는데 뭘 존중하고 있느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남북한 간에 지난 50년 이상 죽 대치되어 왔고 앞으로도 교류협력이라든지 화해협력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주 특수하고 민감한……

○김문수 위원 특수한 것이 바로 여기 들어 있어요. 북한이 말하는 게 특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북한이 늘 인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한은 인권의 현실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권, 내정 불간섭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 바로 그 특수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안 하고 있고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장구를 계속 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제 말씀은 시간관계상 조금…… 이 점은 장관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외교적 현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약소국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국군포로 한만택 씨 강제 북송한 것 아시지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고 있어요. 최고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웃음거리지요. 무슨 최고로 하신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약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하여튼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김동식 목사 건도 자꾸 저 찾아와서 특수성 얘기하는데 특수성 이전에 인권의 보편성이 중요합니까, 특수성이 중요합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인권은 특수한 겁니까, 보편적인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남북한 간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나라별로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아시아의 인권선진국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인권선진국인지…… 북한 비슷한 논리를 계속 내세우신다고요. 특수성, 주권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사실 저는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져가고 싶고 또 그렇게 저도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발표가 국군포로가 542명, 통일부 발표 납북 미귀환자가 486명으로 1028명의 국군포로와 납북 미귀환자가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은 5명의 납치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와서 정부당국자라든지 각 당의 의회 관련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본은 지금 북한인권법을 자민당에서도 초안을 가지고 있고, 다 완성되었어요. 제가 받아 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초안을 다 완성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들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들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1028명이, 정부 발표가 이러니까요. 200배 이상의 미귀환자가 있고 포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과 우리는 탈북자라든지 국군포로, 납북자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배경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또 특수성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어요. 장관님 말씀하실 때 계속 특수성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최소한의 보편성을 장관님이 늘 염두에 두셔야 외교관이지 어떻게 외교관이 계속 특수성, 우리 한국의 특수성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변명 위주로 인권문제를 자꾸 가져가실 때는 우리나라가 도달한 인권수준은 국제적으로 너무 제 값도 못 받게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일본에서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들어온 게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 정부와 어떤 경제제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일본에서는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탈북자 지원을 하다가 추방된 사람이 있지요? 5명 추방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 사람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명단이 어떤지 내달라는데 제시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저는 정부가 무책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원성이 많아요. 제가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안 밝히겠는데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도 탈북자들이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자신들을 버리고 있고 자신들의 이 호소와 억울한 점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자기 조국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안 가겠다 이겁니다. 조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겁니다. 저는 정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수십 마일을 떠나 가지고 살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장관님과 직업외교관들께서 훌륭한 역량과 애국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특수하다고 하시지 말고 어떤 세계적·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인권외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성 위원님!

○최성 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질의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매서운 질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의 입안에 깊숙이 관여했고 또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절대적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인질, 가면을 쓰고'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속기록을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햇볕정책에 지지를 하는 분은 무슨 '가면을 쓰고' 이런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는 충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라는 이런 표현들은 요즘은…… 장애인들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누님이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아무리 흥분되시더라도 절제된 표현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제기는 좋지만 '인질' 이런 극한적인 표현들을 쓰시게 되면…… 조금은 내용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어제 통일부장관에게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보유 문제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의 지속문제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외무부,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 미미하게 온도 차이가 보이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여러 가지 좀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차이가 보이는데 어제 통일부장관은 그런 질의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이견 없다, 똑같다'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는데 장관께서 혹은 외통부 대변인이 혹은 국방부가 핵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통일부장관이 얘기한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핵 보유 여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방과도 공유를 하고 관계 부처 간에도 공유를 해서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개개인별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표현상에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미 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온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교관계라는 것이 또 한미 간에 100% 똑같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그러나 큰 틀에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100%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 측이 우리보다는 좀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은 통일부장관은 '실체가 없고 핵실험도 안 했으니까 그것이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핵무기를 보여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핵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제조는 이미 옛날 방식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을 보유하게 되면 무기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은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

리가 미온적인 태도로 또 저 사람들이 시간 벌기로 넘어가면서 핵을 더 개발을 하면 동북아에서 핵도미노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가지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차제에 우리도 아예 핵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사는 게 낫느냐, 이런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위원님께서 짐작하고 계시는데 미국 내부의 평가들이 전부 다릅니다.

최근에 특히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CIA나 DIA의 평가가 각각 다르고,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상황에 입각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정확한 대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말하자면 오늘 평양방송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나타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몫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시간 벌기를 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에 걸쳐 엄청난 핵을 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이 지연되면 결국 핵은 자꾸 팽창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에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안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 점은 좀 냉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대응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경협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경협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인도적인 차원을 벗어난 실질적인 규모로 하는데 지금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성범 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비료 30만t, 50만t이면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비료 50만t을 요청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한 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제한된 수준의 원조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범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자리를 떠난 한승주 전 주미대사가 떠나면서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정책내용이나 수행과정에서 전문성보다는 아마추어리즘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게 미국 외교를 총지휘했던 주미대사의 평가입니다. 장관께서는 한 대사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승주 전 대사의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다만 한승주 전 대사도 말미에 '그러한 반면에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질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남아의 지진피해 현장을 동료 위원들과 돌아봤는데 일단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의 봉사단원들이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대응이 늦었다, 빨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큰 차질 없이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되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오히려 현지의 대응보다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60만 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서남아에 대한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60만 불을 얘기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큰 조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금방 늘어 가지고 5000만 불이 됐는데, 줄 것 다 주고도 국제적으로는 망신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제재난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직적으로 정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박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력에 맞는…… 요즘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우리의 위상이 국제사회의 모든 일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지원팀 같은 것도 상비로 인원을 선발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ODA라든지 이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서, 일단 2009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ODA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올해 업무추진 방향에도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이래 가지고 주로 영사 업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6월에도 개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영사담당 대사 한 분이, 그것도 조직에 없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영사과 국장 1명과 직원 6명이 전 세계 교민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잘못된 구조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예산 책정할 때도 사실은 영사 업무 좀 강화하라고 인원은 늘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증액했는데 외교부의 무책임한 현상이 최근에도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21일 북한 수역에서 침몰한 화물선 선원 14명 중에 4명을 소련선박이 구조해 가지고 나호트카로 이송했는데 다음 날까지도 외교부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인이 영사과에 전화해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느냐고 사실 확인을 하니까, 8시 반입니다. 물론 일과시간 이후지만 ‘자기는 잘 모르겠다. 과장한테 연락해 봐라’ 과장한테 연락하니까 ‘그것은 해양청 소관이다. 우리는 잘 모른다’ 또 다른 영사한테 연락해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국정지표로 교민 영사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해마다 보고는 하지만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국선박이 우리 선원을 건져다 주면 최소한 그런 선원들이 구조돼서 왔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그때 잘 파악을 못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미숙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선이 침몰된 이후에 해양경찰청에서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본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하고 연락해 가면서 문제를 죽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사과 직원이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그런 답변한 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마치 외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점을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표현도 글쎄요, 그러면 그동안은 국민하고 같이 외교 안 하고 임금님하고만 외교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렇습니다. 영사 업무의 강화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일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핵 외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관련국마다 자국의 정치·외교적 이익 추구라는 전략적 목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동북아 국제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아주 치열한 일종의 외교안보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북핵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구상과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구상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주 광범위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에게는 당면과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적인 대사를 놓고 한반도에서의 지역정세가 불안하다면 중국한테 절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역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국에는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동북아 전체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일 위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남북관계 분단의 지속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에 대해 중국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일 위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이외에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세

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미국도 역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세계적인 평화안정에도 유리하고 특히 그것을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또 한반도의 안정, 번영 또 한국과의 공동번영 추구 이런 것이 목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일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과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제가 느끼는 걱정은 우리 운명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의 힘이 상당히 왜소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최근에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데, 그려 나가는데, 핵 문제도 풀고 그 이후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당사자로서의 역할보다 주변국으로 밀리는 감을 저는 요즘 강하게 갖고 특히 최근의 북핵 사태를 보면서 그러한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주된 이유는 두 가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의 약화이고 또 하나는 민족공조의 실패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자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하는 소모적 논쟁은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2개가 다 중요하고, 2개를 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위한 우리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있었느냐가 문제 아니겠느냐, 한미동맹과 민족공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표류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요한 키 플레이어니까, 동북아 미래의 질서를 결정하는 키 플레이어가 미국이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미국을 통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결국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무슨 레버리지(leverage)를 갖고 있겠어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우리 스스로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역설적이지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데, 문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도 민족공조에서 진일보가 있었느냐, 북한을 설득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의 공동이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커져 왔느냐, 그런 레버리지가 커져 왔느냐 하면 반드시 그것도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민족공조도 성공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의 북핵 선언 이전·이후의 과정을 보면 참담할 정도로 북한은 우리를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히 우리는 북한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는 북한의 권력 핵심과 유용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채널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번 북핵 사태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별로 유효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간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다음에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해 왔는데 7년이 지난 후에 북한은 핵을 갖게 됐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한은 세계로 나오기보다는 더 퇴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한미공조에서도 약화되어서 스스로 자기 운명의 결정권을 약화시켰고 민족공조에서도 제대로 해 내지 못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당사국이 아닌 주변국 신세로, 이 지역의 사실상의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을 강하게 갖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북핵 문제 해결과정이 북핵 이후의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느냐 분단이 지속될 것이냐,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될 것이냐, 분단이 되면 어떤 내용의 분단이 될 것이냐 등등을 포함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만일 북핵 이후에도 한국과 북한의 운명이 강대국의 영향력과 이해 다툼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종속되면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어낼 수 없고…… 북핵 해결이 한반도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우리의 미래가 더 많은 강대국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 가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면 비극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북핵 이후의 한반도 운명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입장을 지키느냐 할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겠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북핵이 해결되는 방법이 자발적인 해결방법도 있고 비자발적인 해결방법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따져볼 때 북핵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그림이 뭔가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략적 수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북핵 문제가 크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장관님은 현안의 불을 끄는데 바쁘시겠지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북핵 이후의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북핵 문제 이후에 한반도의 어떤 질서, 어떤 전략적 그림을 생각하시고 구상하시는가를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해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일 위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민족공조의 실패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참여정부는 지난 2년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제 상당한 기본 틀 위에 세워 놨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이번 방미 중에도 많은 미국 관리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평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족공조 문제는 역시 상대가 이제까지 지난 50여 년 이상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대해 온 상대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민족 간의 화해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핵 이후의 우리의 큰 전략적인 청사진은 이미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공존, 공동번영을 토대로 해서 크게는 동북아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화해 움직임이나 통합과정에 있어서 가장 발전의 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한반도문제가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그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보면 EU와 같은 아주 큰 통합의 질서로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일단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부시 전반기 때 악의 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권법까지 왔는데 이번에 라이스 장관이 취임하면서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까지 연장되는 것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바닥에 깔린 것이 제일 문제이지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불신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데 우리가 한 가

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북한 핵문제의 발단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그 해결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혼동한다든가 같이 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대미 불신문제도 하나의 큰 요인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제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행태도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것이 6자회담의 협상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자기네들의 우방이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이 미국의 어떤 압력을 대신 견디어내 줄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고립감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립감 속에서 오로지 부시정권이 자기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 핵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 타결을 해 준다면 자기네들도 6자회담에 나오겠는데 지금 믿을 만한 배후는 자꾸 약화되고 미국의 압력은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러한 가운데서 안심을 못 하는 현상이 오늘날의 현상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컴퍼터블한 분위기에서 6자회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침략이나 침공을 하지 않겠다, 다자적인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 또 북한의 불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북한이 하는 조치에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것까지 전부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계속 미국에 대해서 당신을 못 믿겠다, 불신이 있다, 적대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6자회담에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무조건 나오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지난해 7월에 워싱턴DC에서 제가 유엔에 나와 있는 박길연 대사하고 한성렬 차석대사를 만나서 오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모습을 보면 11월에 부시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부시가 재집권한다고 했을 때 1기와 2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엔에서 미국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대화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냥 유엔에 나와 있기만 하고 미국의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이 소원하면 유엔에 나와 있어 봤자 북한과 미국 간에 신뢰가 쌓일 계기가 적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봤더니 한성렬 차석대사가 저한테 대답하기를 미국의 권한 있는 인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과의 불신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미국의 본심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제가 건네면서 미국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면 몰라도 대화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불신이 해소가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두 대사들도 퍽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 남북한 문제들이 풀려 갈 만한 대목에 이르면 미국도 자꾸 이상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거나 그 위험성이 그렇게 크다면 미국이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을 통해서 평양을 많이 왕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 미국이 북한 핵을 압박하면서도 실은 미국의 정통한 정보에 의해서 북한 핵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아까 박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을 오래 끌수록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도 좋아질 텐데 미국이 북한에 직접 들락거리려고 하는 기회 포착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실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정세현 장관의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게 보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정세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콘텍스트(context)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정부도 북한 핵문제를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영달 위원 북한이 인권법에 대해서도 잔뜩 오해를 하는 것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정책을 취해 온 가닥을 보면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주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정치철학을 세계에 전파해 보겠다, 힘을 확대해 보겠다는 쪽으로 나갔고, 인권문제는 민주당에서 했던 것이지 공화당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입증시켜 주는 것이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협상 대상에게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해 대니 협상이 되겠느냐, 도대체 미국이 무슨 의도냐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이러한 불신 요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도 중재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엊그저께 금강산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집필 합의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책임있는 정치인과 국어학자들이 왔고 남쪽에서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남북 말이 달라서 이것을 겨레말큰사전으로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남북 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국민모금운동 형식의 통일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남북 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북한 핵문제에 골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거창한 사업들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참여 강도가 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중요하게 파악해서 정부의 입장들을 강화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委員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실 확인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가셔서 윌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만났을 때 반 장관께서 북으로부터 비료 50만t 지원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윌포위츠 부장관이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그 대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啓東 委員 소극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朴啓東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윌포위츠 부장관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때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도 했었다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같은 이유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내에는 정부든 정부 간이든 또는 언론, 학계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대화록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외교적인 관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朴啓東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래도 외교통상위원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지킬 위원들도 없어요.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대응이 독도에 대한 기본 방침이고 실효적 지배를 우위론으로 주장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일본은 독도 분쟁에 대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하기 위한 소

위 7단계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일정 정도 수위를 높여 가면서 계속해 가고 2단계는 독도문제의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3단계에 가서는 유엔에 상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단계에는 군사위기 이후 안보리에 그것을 옮기고 5단계는 안보리에 의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고 6단계는 독도가 일본 영유라는 판결을 받아낸다는 것, 그래서 7단계에서는 완전히 자국화한다는,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일본의 많은 단체들이 이런 단계적 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독도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해야 된다, 일본은 오히려 예산까지 지원받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 가는 판에 우리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장관의 말씀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가 외교부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도수비대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자국 땅은 군인이나 경찰이 지키는 것이지 무슨 수비대가 지킵니까? 그래서 경찰이 가 있는데 경찰의 수장이 취임 초에 방문하겠다는 것을 외교부가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께서는 무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무대응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어떤 우익단체가 선박을 타고 독도에 접근을 기도했을 때 우리가 막았고……

○朴啓東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교부의 그런 노력들도 알겠지만 자기 땅이면 자기 영토답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 땅이면서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하느냐는 것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께서 일본의 7단계 말씀을 죽 하셨는데 일본의 그러한 기도가 사실이라면, 또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본 측의 그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가지고 자꾸 이 문제가 국제분쟁화 될 소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朴啓東 委員 장관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96년도에 하시모토선언이라고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거점으로 독도를 삼았고, 99년도에는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영해로 표시하는 데 이미 진전을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정부는 경찰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군인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수비대라는 엉성한 이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경찰청장이 방문하는 데 외교부가 그것을 막고 있고, 더구나 우리 자국국민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입도 허가제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우리 유학생 3명이 러시아의 스킨헤드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렸는데도 현지에서 4일이 지나서야 외교관이 파견되어서 무성의하다는 평가도 들었고, 또 이번에 쓰나미와 관련해서 태국의 피피섬에 태국정부가 1개월간 출입을 통제해서 외교부는 거기에 못 들어가 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 외교관들은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네팔에서 얼마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의 가족들이 공항도 봉쇄되고 통신도 두절되어서 안타깝게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중국국민들은 자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중국보다도 못하냐 이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현장에 바로 튀어가는 외교적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군포로 한만택 씨 강제 북송 사건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만택 씨는 이미 가족들을 통해서 지난 12월 27일 탈북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국방부에서도 그 사람이 국군포로 맞는다고 24일에 확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외교부는 아무런 조치

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일 약속대로 탈북했는데 28일 중국정부에 잡혔고,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북한에 북송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교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외교부가 우리 국가, 우리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만택 씨 송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외교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환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네팔 사태 시에 비상 외교통신과 관련해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우리가 비상 외교통신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택 씨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김문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외교부로서는 국방부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은 즉시 중국정부하고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불행하게도 북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중국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톤으로 항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만택 씨 재송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민감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한국 유학생 폭행사건도 사실은 알려진 바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난 즉시 우리가 신고를 받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이상 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우리 명예영사한테 연락을 해서 명예영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본인도 가서 위문도 하고 경찰서에도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 외사주재관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각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사관으로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 추가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태국에서의 쓰나미 사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도 직원을 빨리 보내고 좀더 많은 수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워낙 상황이 아주 긴급한 상황하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피해 가족들한테 일일이 손길이 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한 점을 인식해서 최근에 외교부 내에 비상팀을 구성해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또 재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와 보완시스템을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啓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 유선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런 북한의 핵 보유 발표 때문에 많은 홍역을 치르고 계시는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외교부장관께서 재미 중에 이러한 돌발사태에 대해서 아주 침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기에 이 발표의 배경이랄지 또 우리의 대응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의 할 일이 너무도 많고 또 많은 과제들이 실제로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지금으로부터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운데 좀더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공조가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기류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 두 나라의 협의 분위기하고 또 중국·러시아 쪽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쪽은 압박, 한쪽은 설득'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류가 서로 다르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약간 뉘앙스나 이런 것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중국을 통한 북한 설득 이런 면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이 느끼고 있는 북학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어프로치 이런 데서 중·러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큰 틀에서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또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같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유선호 위원 특히 5자 공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앞으로 분석적인,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님은 참으로 중요한 때에 이 나라의 외교통상부장관을 맡고 계십니다. 외교부장관님이 계실 때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역사들이 매일 기록되는 기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외교부장관께서 앞으로 좀더 창의적인 외교를 펼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미외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외교부장관님을 뵐 때 참으로 실용적이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장관님이라고 항상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소신과 철학을 바탕에 깔고 논리로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는 외교가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위기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미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송을 감행하고, 또 미국인들은 매우 강경하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논리적인 설득에는 쉽게 허물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이스와 회담을 하고 나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6자회담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양자회담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옳다, 같은 말이지만 북한 쪽이 요구하는 양자회담과 미국 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양자회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말의 좌우간을 넘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상호간에 좀더 이해를 높이는 실질적인 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양자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중재해 내는 외교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외교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 앞으로 좀더 진취적인 외교방향에 대한 결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유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자 내에서의 양자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점 때문에 저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6자회담 내에서의 미·북 접촉보다는 좀더 폭을 넓혀서 미·북 직접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북한 측에 들어가서 미국도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유선호 위원 물밑에서 대화를 하시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자세를 항상 유지해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행정보다 정치에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나 정치권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장관과의 접촉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든지…… 또 그 당시에 행정부와 정치권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히 정리해서 접근해야 미국외교는 성공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분석이랄지 병행 외교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특히 의회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루가 상원외교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원의 양당 간사,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전부 다 만났고, 특히 여론 주도층들의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KEI가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거의 다 초청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 또 기타 과거 핵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대표들이라든지 전직 주한대사들, 인권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제임스 릴리 대사 등등 가능한 한 폭넓은 인사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오늘 왕자루이 연락부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면담을 해서 김 위원장이 성숙한 조건하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북한의 지난번 발표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단기적인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관성 있게 주도력을 갖고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와중에서도 남북관계가 지속성 없이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남북경협과 핵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나왔고 인도적인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관계가 다소간의 단계적인 발전의 빠르고 느린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함부로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는 식량이나 비료는 우선 작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상황에 비추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관께서 북핵 해결 없이 대규모 남북경협은 없다고 멘트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현재의 남북경협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북핵이 해결되면 대규모 남북경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멘트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톤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긍정적인 톤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점은 제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앞으로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다음으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먼저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도적 역할이 무엇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우리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고 우리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표를 파견한다든지 6자회담의 상황하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주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얼굴을 붉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께서는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아니라 희색이 만면하셨습니다.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미국과 얼굴 붉힐 일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러한 성명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자세였습니다.

○권영길 위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주도적 역할, 그다음에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얼굴 붉히겠다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깊게 새기고 있고 우리 외교의 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 역할은 미국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순응하거나, 순응이라는 용어가 심하다면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미국에 할 말은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장관께서 얼굴 붉히는 말씀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위기상황으로까지 갈지도 모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다셨지만 북한의 자위적인 핵 보유에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의 중심축은, 정책입안의 최종책임은 대통령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장영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

서는 모든 상황의 발단은 북한에게 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 책임론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발단은 북한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서부터 선언, 효력발생까지는 93년부터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당초의 NPT 탈퇴가 아니라 94년 제네바합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있어서 과연 북한의 주장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어떠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3차 6자회담 의장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이것이 3차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3차 회담 이후에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 포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차 6자회담 이후에 부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고, 이번에 라이스 국무장관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했고, 또 부시 대통령은 이를 연두교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담겨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아니냐, 미국은 실제적으로 말과 다르게 항상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께서는 오늘도 북한책임론…… 북한책임론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북한 제재론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장관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북한은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기자브리핑에서 북한은 무조건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고 3차 협의에서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 정도까지 참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기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3차 6자회담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 조치를 취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약속하고 합의하고 나서, 북한의 체제변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로 북한의 체제전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체제전복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체제변형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세현 전 장관도 이와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요건이 갖춰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거든요. 그것 없으면 북한은 복귀를 안 할 텐데,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러한 북한 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상호 조율된 조치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호 조치 중에서 필요한 것은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핵을 개발한 것이 북한이고 또 그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이라는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처음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비핵화선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대통령의 발언들이 북한으로 볼 때는 적대적 정책이겠냐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대화의 장에 와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 미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오늘 장관께서 체니 부통령과 여러 관계자들과의 회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언론이 아니고 우리나라 CBS에서 반 장관의 거짓, 남북협력에 대한 한미 입장 차이, 반 장관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 '비'자도 나오지 않았다-거짓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인터넷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BS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여러 가지 많은 추측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일일이 대응은 안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CBS의 보도가 거짓이지만 대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도 그렇고 몇 가지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대응은 안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장관께서 어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비료지원에 관한 발언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6자회담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견지에서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비료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무엇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관계 등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비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결정한 것은 없고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영길 위원 어쨌든 6자회담과 연계하지 않고 비료는 인도적 견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통일부장관께서 그다음에도 무슨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을 봐 가면서……

○권영길 위원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이지만 어쨌든 6자회담과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한미동맹이 아주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라이스 장관과 여러 관계자들이 한미공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예를 들었는데 이라크 파병, GPR, 용산기지이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전제를 달지만 이라크 파병에 쉽게 동의해 주었고 GPR에 동의해 주었고 용산기지이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일방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한미동맹, 공조가 안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방적 동의는 아니었고요. 이것이 국민적인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협의……

○권영길 위원 국민적인 논란은 정부의 동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다음으로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화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장관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느닷없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 때문에 며칠 외국에 다니시느라고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새삼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듣고 싶은데, 오늘 보도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한 마디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이해가 되는 것이 분위기가 성숙되고 조건이 성숙되면 다시 회담에 나오겠다는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조건이 성숙된다면이라는 조건절을 달아 놓음으로써,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북한이 아직도 회담에 나오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이 북한 측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미리 얘기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해 놨는데 이런 원칙적인 표현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6자회담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계동 간사,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정의화 위원 혹시 핵무기를 더욱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는 아닐까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추측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이 6자회담에 전적으로 동의한 바가 있고, 또 그간 6자회담에 참여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달 시간을 끌면서 타이밍을 봐 왔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러면 여건이 유리하도록 빨리 만들어 줘야 회담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동안 접촉을 해 보고 느끼시는 것이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리비아식의 해결 방법도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리비아의 경우에 리비아가 한 원칙적인 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예를 따르게 되면, 스스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북한의 경제나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점은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의화 위원 지금 제 자료에 NSC 보고서에 따르면 카다피 국가원수가 방한을 한다면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 대가를 원하면 지불할 능력도 있다고 했다는데 장관님께서 1월 25일에 리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대통령 친서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카다피 원수도 한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노 대통령님의 초청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주 기꺼이 초청을 수락한다고 얘기를 했고……

○정의화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단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실제 카다피 국가원수가 간다고 할 때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예견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안보리는 여러 가지 조치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안보리에서 의장의 성명서를 낸다든지 그 단계를 넘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테이크 업해서 토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 결의안도 일반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핵 폐기를 권고하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있을 수 있고, 좀더 강제적인 수단이 들어가는 결의안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수단으로 가면 경제제재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안보리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의화 위원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안보리 회부를 통해서 압박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뭐라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쉬운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중국 외교와 러시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해서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낄 때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외교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독일이 통일될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겐셔는 외무부장관을 아주 오래 하셨더군요. 정권이 바뀌어도 19년을 계속하셨던데 그렇게 하면서 소련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저 외무부장관의 발언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통독에 굉장히 큰 역

할을 했다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분이 반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짧은 기간의 제 감입니다. 저도 인생을 57년 살아왔고 어릴 때 미국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도 지금부터 그런 것이 필요해요. 지금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일을 위해서 반기문 장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장관직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마 듣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15대 때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결국 외교라는 것도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갈 때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경협도 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수많은 의원들이 왔다 가고 훌륭한 많은 외교관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나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쪽과의 라인은 상당히 약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치권도 외교에 관한 한은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관께서 반장관이시고 또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지칭을 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제가 주요현안보고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삼겠다” 저는 이게 상당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도 외무부장관이 되셨으니까 단순히 외교 부분도 있지만 CEO로서 수장으로서의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강한 대한민국 이런 것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 하는 게 오히려 더 21세기적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참여정부라서 이렇게 말을 또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20세기적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지금 이백몇십 나라, 한 나라에 한 공관을 두겠다, 공관을 못 둘 경우는 1인 공관이라도 만들겠다 하는 철학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둘째는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통일부장관은 정보공유에 대해서 미국과 아주 잘 되고 있다, 아무 걱정 없다…… 제가 알기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확인한 바도 거기 있는 전문가나 관료들을 만나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NSC의 자료가 유출되는, 2급 비밀이 유출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박계동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공유와 또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통외통위원이 되어서 공관장회의를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년으로 물러나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 그분들이 영사를 했건 뭘 했건 4개국은 다 거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이라도 여기에 거쳤던 분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분들을 어딘가에 모아 가지고, 지금 외교학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경륜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외교의 문제에서도 그때그때 그분들에게 리포트를 받고 그분들이 바로 TF팀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장관의 오른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돈 주고 어디 멀리 가서 살 것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죽 브리핑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전문가구나, 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이 리타이어하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엄청난 국가의 손실이다, 어쨌든 박봉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봉에 외국에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예산을 올해 신청을 해 주면 우리 몇몇 위원이 나서서라도 그거 만들어 드리겠다, 저는 중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특히 우리가 좀 취약한 곳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을 초청하자고요. 옛날에 중국에서 상무위원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정·관계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한국도 보여 주고 대화도 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건배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ODA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PKO의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따로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PKO는 유엔에서 냅니다.

○정의화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 한 분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국감 때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우리 군인들을 보내 가지고 경험도 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원년 타이틀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여러 가지 좋은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여당답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권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장관님이 방미 당시에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하고 하셨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박계동 위원께서도 질의했을 때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국내에 알려지기로는 대북 비료지원 문제가 그 자리에서 논의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월포위츠 측에서 대북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회담 이후에 인도적 대북지원 차원에서의 비료지원이 유보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대북지원 또 대북경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까지 결정을 하고 필요한 사안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측에도 우리가 연락을 해 주고 또 양해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방미 중에 어떤 미 행정부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로서 개성공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걸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양해와 지지를 구했고, 다만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화영 위원 전반적인 뉘앙스인데 통일부장관께서는 대북 비료지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외교통상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 입장이 있어서 정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화영 위원 지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 미국에 갔을 때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된 쌀과 비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개성공단사업이나 저희들의 대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축소지향적으로 말씀하신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사실이 그렇고요. 사실이, 우리가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 2만 8000평에 달하는 시범단지로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제한된 양의 쌀과 비료를 지원해 왔던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북경제협력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 굳이 미국이 어떻게 우리 정부에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 통일부가 정한 방침대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 질의에서 리비아 해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이란 이렇게 대처한 경험을 북측이 평가하면서 이라크하고 리비아는 실패한 케이스로, 그러니까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북한은 실패했던 대응조치로 이해하고 있고 이란

은 지금 관찰 중에 있고 파키스탄 사례를 북한 측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측 관계자 쪽으로부터 일정하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파키스탄 케이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추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화영 위원 중국에서도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별 지원이 없고, 일본 측에서 자꾸 대북 제재론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표현은 완화되었지만 북한에 대해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북한의 입장은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술상 유리하겠다 이런 종합적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자회담 참여국들이 6자회담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대한 카드가 북측에 썩…… 과거 93년 NPT 탈퇴할 때의 효력 같은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강한 수를 쓰고 나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어차피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잃을 것도 없고 자기네 내부체제를 강화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6자회담 참여 당사국들이 이것을 계기로 좀더 변화된 자세를 취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적 차원에서 변화된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 못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 나와서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관련 당사국들이 필요한 유연성이나 창의력 이런 것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전부 다 좀더 신축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양식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공개적인 형태로 압력이나 종용이 가해졌을 때 부정적 가능성을 보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쓰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투명방법론을 제안한 이래 그와 같은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약한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스테레오타입으로만 대응하는 것 같은 자세가 있는데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협상과정은 필요시에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입니다만 제가 북한 외상도 만나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과거에는 뉴욕 채널 같은 것도 가동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문헌 위원께서 사진 전사방식 여권제작기 관련 질의를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께서는 '특정업체의 민원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식 기계가 도입될 경우 여권 하나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 일제는 4만 원이고 국산은 3만 원 든다는 내용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이화영 위원 그리고 일본제를 사용했을 경우 연간 1200억 원 정도의 일본제 소모품이 들어와야 되고 장비도 일제는 연간 56억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업체의 민원성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방식으로 변화되면 국민들이 전부 새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산 기술이 있다고 전제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1인당 1만 원씩 더 내고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특히 대단히 민감한 일본제 기술에 대해서 연간 1200억씩이나 소모품 비용으로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체인식 정보까지 전부 일본 측에다 넘겨주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개별업체의 민원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수준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해서 이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입장도 그렇고 정문헌 위원님 주장과 제 주장이 서로 다른데 외교통상부 측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상의해 볼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언론에서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네티즌들도 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아주 민감해 하는 일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후에 많은 애깃거리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털고 가는 게 어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냐 국산이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가격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이 위조·변조되지 않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여권, 품질규격에 맞는 여권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우리 국내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충분히 공개된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면 국산으로 하는 것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완전히 공개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외국업체나 국내업체나 동등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점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원, 특수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마는 소송은 소송대로 법적인 절차를 취해 나가고,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외교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특정업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업체로써 제일 우선순위로 뽑았을 때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규격에 미달했다 그래서 뽑은 담당자가 인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하기도 어려운…… 이게 국민적인 감정에 호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기술력의 수준인데 대원SCN도 외교통상부하고 조폐공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 사업 연구·개발에 약 6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도 자신 있는 기술수준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된 계기도 외교통상부와 조폐공사가 의뢰해서 시작했었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까 정문헌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로비설, 최규선 게이트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었고, 장관님이 아시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정문헌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각 영역의 주장에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술에 관련된 전문가, 외국사람도 좋고 전문가가 각 기술력을 평가해 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희생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특정업체가 60억을 들여서 연구·개발해 놓고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흐름들, 아까 외교부 담당 직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처벌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처벌을 받은 것도 이 업체의 주장은 자기 회사 때문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하튼 굉장히 다른 해석이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나중에 국민들 눈에 비춰볼 때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또 여러 간부님들, 하루 종일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 관련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질의내용이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관님,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타결을 낙관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단 최종까지 협상해 봐야 됩니다.

○김부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부는 비교적 신중했던 것 같은데 최근 국방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미국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게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정상외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뒤에 그런 나라들과 경제통상에 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잘 챙기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어제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자원 또 에너지 외교에 대한 큰 워크숍을 경제단체연구소하고 개최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리고 한일 FTA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 혁신 관련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짚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부가 소위 북한이 이런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중대선언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외교부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겁니까,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장관님께서 워싱턴에 가계심으로써 오히려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고, 특히 CNN에 나오셔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과 몰랐다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몰랐고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탕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가서 협의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 그다음에 라이스 국무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 등등으로 봤을 때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라든지 연두교서에서 특히 북한을 지칭해서 비난했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두 가지 언급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 당시에 특별한 반응을 대외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웰든이나 랜토스 하원의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한테 전해 온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연락해 왔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설혹 우리 정부가 알았다, 북한이 저렇게 막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바로 '이것은 협상 제고용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차분하게 인상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답답한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 저게 국제 정치적인 다양한 함의로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뚜렷하게 설명하는 게 없다, 북한이 핵을 가졌든 간에 아니든 간에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설명에서 크게 나아간 게 없다는 말이지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북한 핵이라는 게 협상 제고력이든 국면전환용이든 혹은 정말로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현 단계의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상에서 북한의 주장, 심지어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당국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나 힘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과소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동북아 질서나 한반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별로 없다든가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북한의 협상전략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자체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명서에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실망감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데 그저께 나온 미·일 외무·국방장관들의 성명내용과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이나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약간 차이가 감지됩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일본 중국 러시아 외상들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5자 간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 아마 잘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미·일 간이 느끼는 북한 핵문제라든지 또 중·러 간 느끼는 문제 등등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해법 과정에 있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정부당국자들이 약간씩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하고 관련 정부 간에 협의해 가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법 또 6자회담을 통한 그러한 체제 내에서의 해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따라서 5자 간에 6자회담을 끌어가겠다는 전략적인 큰 노선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전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든 동시에 태도를 변하지 않고는 이 협상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 제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하려는 노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 당국을 이번에 만나셨는데 당국자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한 스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득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미국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당신들도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이 문제의 해법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자가 다 여기에 깊은 이해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태도를 바꾸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다만 상당수 사람들이 미·북 간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전부 조금씩 신축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제가 미국 측에도 일반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북한이 미국 측에서 소위 믿을 만한 성의 혹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현 단계에서 북한이 마지노선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점은 계속 파악해 가는 외교적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고, 중국 왕자루이 부장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결국 장관님은 북한이 어떻게 선언을 하든, 주장하든 간에 이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을 통하지 않고는 풀릴 길이 없다는 것을 북한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장관님께서도 중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는 장관님의 판단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중국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는 없는지, 또 북한의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적으로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를 주변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인권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 여론도 호전시키고 미국 내에 있어서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얻어내는 방법으로 양자를 서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오후 내내 고생하십니다.

6불화우라늄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있은 뒤에 2월 11일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저희 한나라당의 국방위 위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의 마이클 그린 국장이 '미국은 확실히 북한이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넘겼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고 또 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력하에서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마이클 그린 선임보좌관이 왔었을 때 만난 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사실 상당히 많은 보도사항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뉴욕타임스에서는 확인이 되었고, 즉 리비아에 거의 2t이나 공급을 했을 것이고, 다량의 고위험 물질을 넘겨주었다는 점을 리비아에서 확인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리비아에 넘길 때 일종의 수출계약서라든가 꼼짝도 못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정보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답변을 좀 미진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공급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전해지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미 정보사항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레드라인 즉, 핵물질의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도 확인을 해 줬고 또 리비아가 미국에 그런 정보를 전해 주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마디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한미 간에는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의견 교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확산 이런 데 대해서 공동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우리 한국정부는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몇몇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핵물질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그것을 캐치하는 데 가장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미국 나름대로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물질의 유출, 확산 이런 데 대해서 공동경계하자고

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주도하에 PSI 같은 것도 조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관의 업무나 상황에서 이해도 갑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아해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분노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물론 업무상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안보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주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미국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라는 파키스탄에서 핵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동안 북한을 열 차례 정도 방문했고, 최근 미국과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미국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칸 박사가 넘긴 정보라든가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미국으로 넘긴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정부도 관련된 많은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이러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2월 11일에 핵보유 선언을 했는데 왜 그 시점에서 핵보유 선언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북한이 왜 2월 11일에 했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만한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단계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田麗玉 委員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얻을 것이 없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은 마이클 그린 국장이 북한이 핵물질을 이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에, 또한 북한이 그 증거를 입수했기 때문에 핵보유 선언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측도 한번 점검을 해 볼만 하지 않은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주일 전에 6자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망신까지 당한 꼴이 되었는데 마이클 그린 국장이 말한 것이 북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은 인정하시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마이클 그린 선임보좌관이 그것을 발표했던 것은 아니고 뉴욕타임스에 일단 리크가 됐던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로서는 현재 그것을 핵보유 선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시키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회의 때문에 하루 종일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서도 비료문제에 대한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분명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료의 'ㅂ'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결국 나왔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이클 그린 국장의 핵물질의 전이 발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태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비료의 'ㅂ'자 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다, 안 그렇다'……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하나의 확신을 주든지 아니면 위험하면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의 'ㅂ'자라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Fertilizer의 'f'자도 안 들어갔다고는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이야기도 안 했

습니다. 아마 누가 재미나게 쓰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다면 미국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보여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비료문제는 제가 먼저 꺼냈다고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과정에서 상대측이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측에서 그렇게 물었고 제가 소강상태부터 시작해서 남북한 간에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교류협력관계를 죽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비료 이야기를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이지요.

○田麗玉 委員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미국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에서의 보도가 굉장히 판이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뉴욕타임스에 났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田麗玉 委員 그러면 뉴욕타임스 쪽에 오보에서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도 정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날 아침에 난 워싱턴포스트는 100%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did not request'라고 나왔습니다. 자꾸 뉴욕타임스만 가지고 보도를 많이 하는데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완전히 100% 다르게 나왔는데 그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田麗玉 委員 워싱턴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가 반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NN이라든가 또는 NBC, ABC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마 뉴욕타임스를 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개 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장관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의 방송사는 물론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방송사도 무조건 신문을 받아서 쓰지는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정리해 주시지요.

○田麗玉 委員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6불화우라늄의 이전은 IAEA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을 체크한 결과 북한이 IAEA에 신고하지 않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문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도 탈퇴하고, 90년대 초부터 북한과 IAEA 간에 체결된 Safe Guard Agreement에 따르는 최초 신고서가 사찰단의 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고가 안 된 것이겠지요.

○田麗玉 委員 이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힐 대사가 '핵무기는 북한에게 식량 제공은 물론 그 어떤 도움도, 미래도 제공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실상 북한이 아주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국가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식량 제공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식량 제공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인도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힐 대사가 식량 제공을 할 수 없다고는 이야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핵무기가 식량을 줄 수도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田麗玉 委員 보도가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식량 지원은 우리가 인도적인 경우에서 한 것이고요.

○田麗玉 委員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에 식량 제공은 물론 그 어떤 도움도, 미래도 제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미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린 보좌관도 만나셨고 국장도 만

나셨지만 만나지 못한 국민들의 답답함이나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교부에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이고, 힐 대사를 만나서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또 그 면담의 결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통외통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예.

○이화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권교체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권교체사업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갈 수도 있는 사업이고 올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비용부담이 증가된다는 주장도 있고, 우리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달청 입찰조건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조달청 입찰조건이라는 것이 특정업체에게만 적용 가능한 편파적 입찰조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외국 업체, 특히 일본 업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일본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권교체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공청회 개최 제안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요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최병국 위원님 박세일 위원님, 임종석 위원님 이성곤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못 다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정의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出席委員(21人)

권영길	김문수	김부겸	박계동
박성범	박세일	신계륜	원희룡
유선호	이성권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전여옥	정문헌
정의화	최 성	최병국	한명숙
홍준표			

○請暇委員(1人)

정의용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	김성원

○政府側參席者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차관	이태식
차관보	송민순
기획관리실장	김성환
외교정책실	
실장	천영우
정책기획관	김원수
아시아·태평양국장	박준우
북미국장	김 숙
아중동국장	손세주
문화외교국장	구본우
재외국민영사국장	이준규
지역통상국장	이건태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報告事項】

○議案回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2월18일 유기홍・김태홍・강창일・고진화・배일도・최순영・강기갑・강기정・강길부・강혜숙・곽성문・구논회・권영길・김동철・김원웅・김영숙・김재윤・김종률・김충환・김태년・김현미・김형주・김홍일・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문병호・문학진・민병두・박명광・박찬석・박창달・배기선・백원우・복기왕・서갑원・선병렬・송영길・신중식・심상정・안상수・안택수・양승조・오제세・우상호・우제항・유시민・윤건영・윤원호・윤호중・이경숙・이미경・이성권・이영순・이은영・이인영・이재오・이종걸・이화영・장경수・장복심・장향숙・전병헌・정갑윤・정봉주・정장선・정청래・정화원・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승수・지병문・진수희・천영세・최용규・최인기・최재성・현애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2월21일 회부됨